

## 266장 - 주의 피로 이룬 샘물

- (1)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 (2)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 (3)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 후렴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말히네

## 295장 - 큰 죄에 빠진 나를

- (1)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 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 (2)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 (3)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 후렴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3월 7일(수) 기도 담당 : 이철용 집사

## 이른아침예배

인도 : 고흥석 목사

예배를 여는 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266장 ..... 다 같 이  
기 도 ..... 송갑준 집사  
성 경 봉 독 ..... 창 2:18~24 ..... 인 도 자  
찬 양 ..... 새벽찬양대  
설 교 ..... 『**빠 중에 빠요 살 중에 살이라**』 ..... 이상학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같 이  
찬 송 ..... 295장 ..... 다 같 이  
축 도 ..... 설 교 자

### <창세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3월 6일(화)	창 2:18~24	빠 중의 빠요 살 중의 살이라
3월 7일(수)	창 3:1~7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3월 8일(목)	창 3:8~11	누가 네게 알려주었느냐?
3월 9일(금)	창 3:12~24	타락 이후의 아픔

※ 이른아침예배 시 성경책을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3월 6일(화)

###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 받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열게 하셨으니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시고 주 안에서 평강과 기쁨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점검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문안에 속한 모든 부부들이 가정을 만드신 주님 뜻을 따라 서로 한 몸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로 더욱 세워져가게 하옵소서.

### 새문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땅에 새문안교회를 세우시고 이 민족에 복음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문안교회가 더욱 주님 닮은 모습으로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어 이 사회에 주님의 기쁘신 뜻을 선하게 펼쳐가도록 인도해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기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영원한 생명주신 주님의 사랑에 더욱 감격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 성전건축을 위해 온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문안교회 여섯 번째 성전이 온 나라와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 또한 복되게 지어져가게 하시되, 3월부터 시작된 신앙프로그램들로 인해 성도들의 주님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담임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주시어 목사님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열망이 새문안교회에 잘 이뤄지게 하옵소서. 동역하는 교역자들과 협력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선한 은혜를 베풀어주시며 해외에서 주의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님들과 국내에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시어 이들의 수고로 생명의 열매가 온누리에 맺히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과 일터에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